
복원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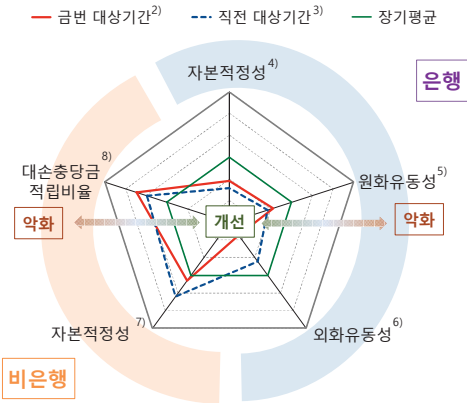
I. 금융기관	68
II. 대외지급능력	80
III. 금융시장인프라	83

I. 금융기관

일반은행¹⁾의 복원력은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였다.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자본적정성 비율이 감독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대손충당금적립비율과 손실흡수력을 보완하기 위한 대손준비금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금유출에 대한 대응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비율도 모든 은행에서 감독기준을 상회하였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대부분의 업권에서 고정이하여신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이 하락하였으나 자본적정성은 감독기준을 상회하는 등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그림 I-1).

그림 I-1. 금융기관 복원력 지표 변화 지도¹⁾



주: 1) 각 지표별 장기 평균(5년)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금번 대상기간과 직전 대상기간 지표의 상대적 수준을 지도에 도시
 2) 2023년 3/4분기말(원화 및 외화유동성은 23년 10월말, 비은행 중 보험회사의 자본비율은 23년 2/4분기말)
 3) 2023년 1/4분기말 4) BIS 기준 총자본비율
 5)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6) 외화 LCR
 7) 비은행 업권별 자본비율을 총자산 규모에 따라 가중평균
 8) 비은행 업권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총자산 규모에 따라 가중평균
 자료: 한국은행 시산

1. 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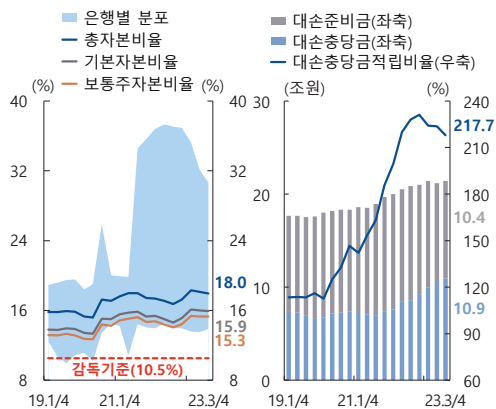
손실흡수능력 양호한 수준 유지

일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 기준 총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은 2023년 3/4분기말 각각 18.0%, 15.3%로 금년 1/4분기말(18.3%, 15.4%)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이는 당기순이익이 늘어 자본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증가로 위험기중자산이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다. 은행별로 보면 모든 은행이 감독기준(10.5%, D-SIB²⁾ 11.5%)을 크게 상회하였다.

예상손실에 대한 흡수능력을 나타내는 대손충당금적립비율(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은 2023년 3/4분기말 217.7%로 금년 1/4분기말(224.3%) 대비 6.6%포인트 하락하였다. 이는 연체율 상승 등으로 같은 기간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규모(+1.0조원)가 늘어났으나 일부 은행 중심으로 고정이하여신도 증가(+0.6조원)했기 때문이다. 손실흡수력을 보완하기 위해 감독규정상 여신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적립하는 대손준비금은 금융감독당국의 지속적인 노력³⁾ 등으로 2023년 3/4분기 10.4조원으로 금년 들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I-2, 그림 I-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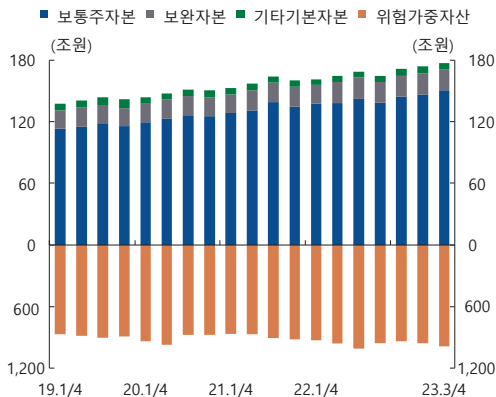
1) 금융안정보고서의 은행 부문은 일반은행(시중, 지방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영업모델이 상이한 특수은행(산업, 기업, 수출입, 농협 및 수협 은행)은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2) 2023년 국내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D-SIB,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는 신한은행(신한지주), 하나은행(하나지주), 국민은행(KB지주), 농협은행(농협지주) 및 우리은행(우리지주)이며, 2024년에도 동일하다.

그림 I-2. 일반은행¹⁾ 바젤III 기준 자본비율²⁾ 및 대손충당금적립비율²⁾



주: 1) 토스뱅크 제외(2023년말까지 바젤 I 적용)
 2) 기말 기준
 3) 2023년 규제기준: 보통주자본비율 7%, 기본자본비율 8.5%, 총자본비율 10.5%(D-SIB의 경우 각각 8%, 9.5%, 11.5%)
 4) 대손충당금적립비율=대손충당금/고정하여하신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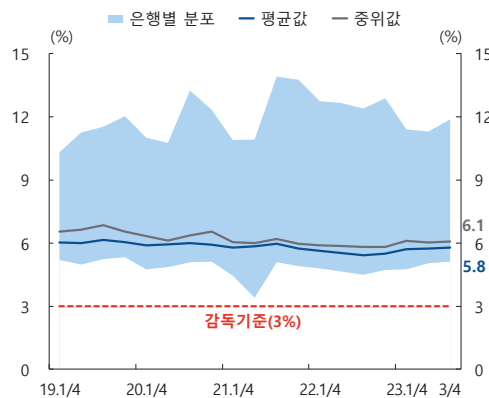
그림 I-3. 일반은행¹⁾ 자기자본비율 변동 요인²⁾



주: 1) 토스뱅크 제외(2023년말까지 바젤 I 적용)
 2) 기말 기준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일반은행의 레버리지비율⁴⁾은 2023년 3/4분기말 5.8%로 금년 1/4분기말(5.7%)과 유사한 가운데 모든 은행이 감독기준(3%)을 상회하고 있다.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대출자산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에 이어 소폭 낮아졌다(그림 I-4).

그림 I-4. 일반은행¹⁾ 레버리지비율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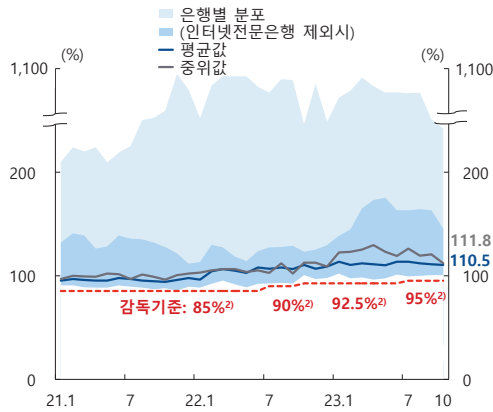
주: 1) 토스뱅크 제외(2023년말까지 레버리지비율 규제 미적용)
 2) 기본자본(보통주자본+기타기본자본)/총익스포저, 기말 기준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 3) 대손준비금은 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준비금에 더해 감독규정상 여신건정성 분류기준에 따라 추가로 적립하는 제도로, 금융감독 당국은 2023년 1월 경기상황에 대응하여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토록 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을 예고한 데 이어 11월 동 제도를 감독규정화 하였다. 현행 기업여신의 경우 최저적립률은 정상 0.85%, 요주의 7%, 고정 20%, 회수 의문 50%, 추정손실 100%를 적용하고 있다.
- 4) 레버리지비율은 「은행업감독규정」상 단순기본자본비율을 의미하며, 은행 부문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를 제한함으로써 유사시 급격한 디레버리징으로 인하여 위기가 증폭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동 비율은 총익스포저를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위험가중자산에 기반한 최저자기자본 규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1/4분기부터 보조지표로 공시된 후 2018년부터 동 규제가 시행되었으며, 2020년 1월부터는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적용되었다.

유동성 대응능력 대체로 양호

일반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⁵⁾(LCR: Liquidity Coverage Ratio)은 2023년 10월중 110.5%로 금년 3월(112.2%) 대비 1.7%포인트 하락하였다. 이는 하반기중 만기도래 예수금이 증가⁶⁾함에 따라 순현금유출액이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다. 은행별로 보면 모든 은행에서 규제 완화 전 감독기준(100%)을 상회하고 있다⁷⁾(그림 I-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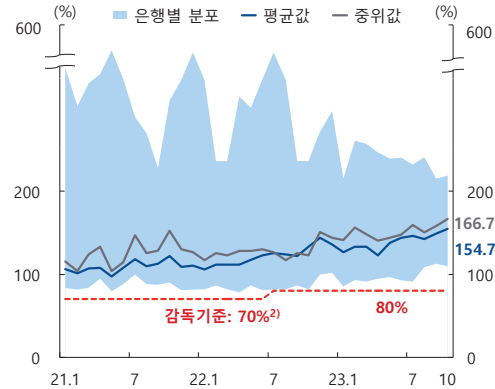
그림 I-5. 일반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¹⁾



주: 1) 고유동성자산(월 평균)/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2) 2020년 4월-2022년 6월중 85%, 7-9월 90%, 10월-2023년 6월 92.5%, 2023년 7월-2024년 6월중 95%를 적용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외화유동성 충격에 대한 은행의 대응여력을 나타내는 외화 LCR⁸⁾은 2023년 10월중 154.7%로 2023년 3월(133.3%) 대비 21.4%포인트 상승하였다. 은행별로 보면 모든 은행들이 감독기준(80%)을 상회하고 있다(그림 I-6).

그림 I-6. 일반은행 외화 LCR¹⁾



주: 1) 고유동성 외화자산(월 평균)/향후 30일간 외화 순현금유출액
 2) 2020년 4월-2022년 6월중 한시적 적용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장기적 측면에서 은행 자금조달 구조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⁹⁾(NSFR: Net Stable Funding Ratio)은 2023년 3/4분기말 114.5%로 개별 은행 모두 감독기준(100%)을 충족하였다(표 I-1).

표 I-1. 일반은행¹⁾ NSFR²⁾

	2021년			2022년			2023년		
	4/4	1/4	2/4	3/4	4/4	1/4	2/4	3/4	
평균	111.2	108.9	108.2	108.2	111.9	112.2	114.6	114.5	
중위값	109.2	107.7	107.7	106.6	109.7	108.6	111.6	1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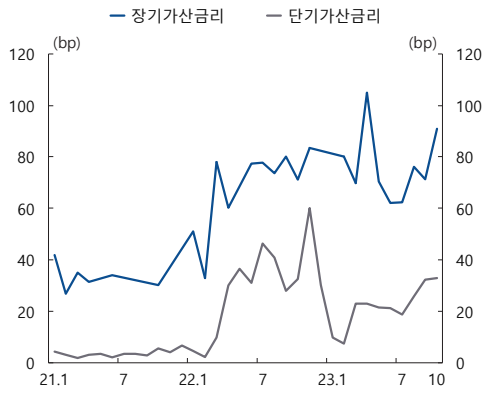
주: 1) 토스뱅크 제외(2023년말까지 NSFR규제 미적용)
 2) 가용안정자금조달금액/필요안정자금조달금액, 기말 기준
 3) 감독기준은 100%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5)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유동성자산으로 계산되며 분자인 고유동성자산은 월중 평균 기준이다.
 6) 일반은행 원화예수금 만기도래액은 2023년 2/4분기 165.7조원에서 4/4분기 265.9조원으로 약 100조원 증가하였다.
 7) 현재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감독기준은 95%로 적용되고 있으며, 금융감독당국은 등 규제비율을 2024년 6월까지 연장하여 적용하고 최종적인 정상화 여부는 내년 2/4분기중 결정하기로 하였다.
 8) 외화 LCR은 바젤Ⅲ 규제는 아니지만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실물 부문에 안정적으로 외화를 공급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2017년 1월부터 공식 규제로 도입되었다(규제기준 월 평균 80%). 수출입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및 외화부채 규모가 작은 일부 지방은행(광주은행, 제주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은행에 적용되고 있다.
 9) NSFR은 은행들이 단기 도매자금조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행태를 제한하기 위하여 장기 운용자산의 일정 부분을 안정적인 부채 및 자본으로 조달하도록 규제한다.

대외 외화조달 여건 대체로 양호

일반은행의 대외 외화조달 여건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나타냈다. 은행의 외화차입 가산금리는 SVB·CS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2023년 4월중 상승하였으나 미 연준 등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 영향으로 빠르게 하락하였다. 한편 금년 하반기 들어 은행의 장기 및 단기 외화차입 가산금리가 모두 상승하였으나 이는 외화조달 여건의 악화보다는 주로 은행의 차입만기가 장기화된 데 따른 것으로 과거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그림 I-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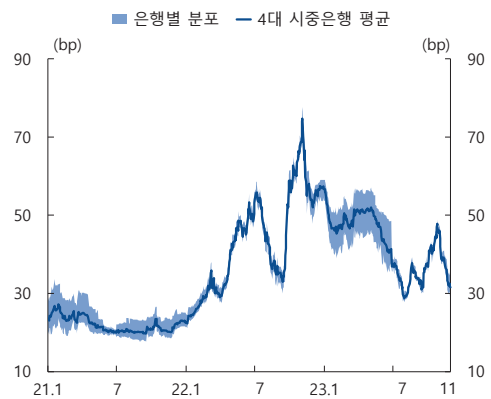
그림 I-7. 대외 외화차입 장·단기 가산금리¹⁾²⁾



주: 1) 2022년 3월 이전은 LIBOR 기준 가산금리, 2022년 4월 이후는 SOFR 기준 가산금리(국민, 신한, 우리 및 하나 은행의 미 달러화 차입금액 가중평균)
 2) 국내 금융기관 간 차입 및 본지점 차입, O/N은 집계대상에서 제외
 자료: 한국은행

일반은행의 CDS 프리미엄도 2023년 1/4분기 이후 대체로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한편 10월중에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빠르게 하락하여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그림 I-8).

그림 I-8. 일반은행¹⁾ CDS 프리미엄²⁾



주: 1) 국민, 신한, 우리 및 하나 은행 기준
 2) 5년물 기준
 자료: Markit

2. 비은행금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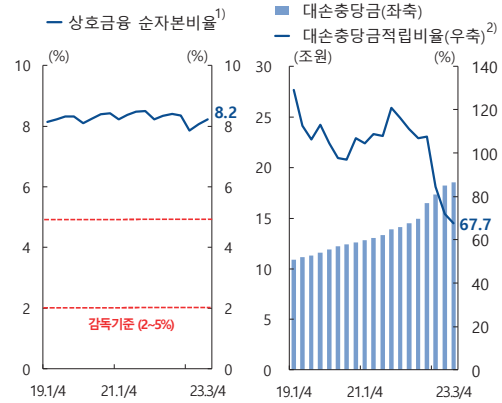
2-1.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일부 손실흡수력 지표의 하락

상호금융의 순자본비율⁹⁾은 2023년 3/4분기말 8.2%로 금년 1/4분기말(7.8%) 대비 0.4%포인트 상승하였다. 대손충당금적립비율(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은 고정이하여신이 큰 폭 증가하면서 2023년 3/4분기 67.7%로 금년 1/4분기말(84.6%) 대비 16.9%포인트 하락하였다¹⁰⁾(그림 I-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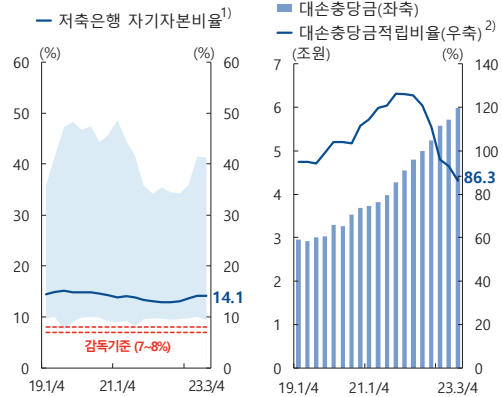
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2023년 3/4분기말 14.1%로 금년 1/4분기말(13.6%) 대비 0.5%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는 대부분 저축은행에서 당기순이익 감소 등으로 자본이 약화되었으나 대출 감소 등으로 위험가중자산이 더 크게 줄어든 데 기인한다.¹¹⁾ 저축은행별로 보면 모든 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감독기준(7~8%)을 상회하고 있으나,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규제수준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손충당금적립비율(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은 2023년 3/4분기말 86.3%로 금년 1/4분기말(95.9%) 대비 9.6%포인트 하락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 증가규모(+1.1조원)가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액(+0.4조원)을 크게 상회하였기 때문이다¹²⁾(그림 I-10).

그림 I-9. 상호금융 손실흡수력 지표



주: 1) 감독기준 농협 5%, 수협·신협·산림조합 2%, 새마을금고 4%
2) 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대출채권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I-10. 저축은행 손실흡수력 지표



주: 1)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감독기준 7%(자산 1조원 이상은 8%), 음영은 개별 저축은행 분포
2) 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대출채권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9) 순자본비율 = (총자산-총부채-출자금+후순위차입금+대손충당금)/(총자산+대손충당금)×100, 단 출자금은 조합원 탈퇴시 환급이 보장된 출자금에 한한다.

10) 상호금융에 대한 감독규제비율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자산(대출채권 등)에 대한 적립기준(요적립액)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이며, 2023년 3/4분기 123.3%(새마을금고 제외)로 감독기준(100%)을 상회하고 있다.

11) 저축은행은 2023년 1/4-3/4분기중 누적 순손실(-0.1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위험가중자산 규모는 2023년 3/4분기 114.1조원으로 금년 1/4분기(117.5조원) 대비 3.0% 줄어들었다.

12)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규제비율인 요적립액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은 2023년 3/4분기 110.2%로 규제비율(100%)을 상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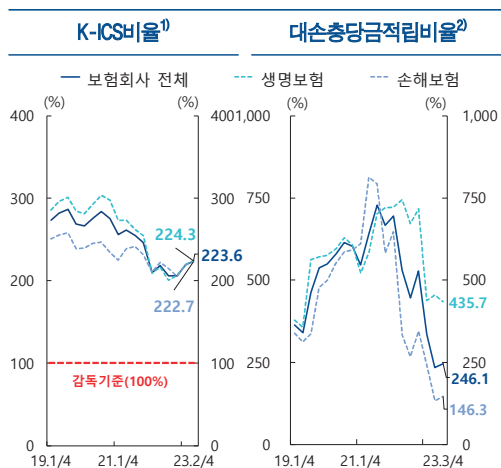
2-2. 보험, 증권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손실흡수력 업권별로 상이

보험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새로운 지급여력비율인 K-ICS비율¹³⁾(경과조치 적용 후 기준)은 2023년 2/4분기말 223.6%¹⁴⁾로 2022년 4/4분기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고정이하여 신규모가 증가¹⁵⁾하면서 하락세를 지속하다 2023년 3/4분기말 246.1%(생명보험사 435.7%, 손해보험사 146.3%)로 전분기말(234.9%)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그림 I-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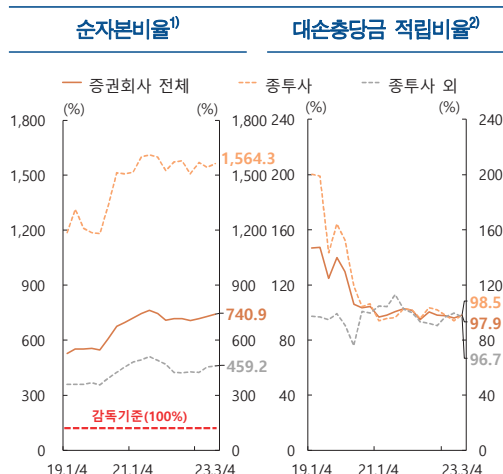
증권회사의 순자본비율은 2023년 3/4분기말 740.9%로 종투사(1,564.3%)와 종투사 외 증권회사(459.2%) 모두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97.9%로서 2020년 하반기 이후 종투사와 여타 증권회사 모두 대체로 100% 내외를 유지하였다(그림 I-12).

그림 I-11. 보험회사 손실흡수력 지표



주: 1) 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2022년말까지는 ABC비율, 2023년부터는 K-ICS비율 기준
 2)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고정이하여신(대출채권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I-12. 증권회사 손실흡수력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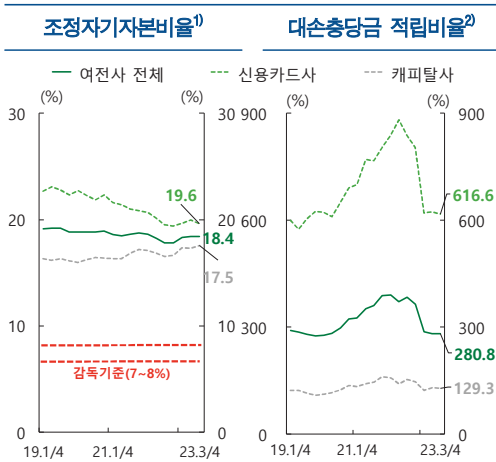


주: 1)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필요유지자기자본
 2)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고정이하자산(자산건전성 분류 대상 자산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3) 2023년부터 보험회사에 신뢰계제도(IFRS17 및 IFRS9)가 도입되면서 기존 위험기준 자기자본(Risk-Based Capital) 제도를 대체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되었다. K-ICS 하에서는 자산·부채 시가평가를 통한 가용자본 산출, 요구자본 산정시 신규 리스크(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 위험) 추가, 리스크 신뢰수준 상향 조정(99% → 99.5%), 리스크 측정방식 정교화(위험계수 방식 → 충격시나리오 방식) 등 자본비율 산정 방식이 전면 개편되었다. 다만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최대 10년간 경과조치가 적용되며, 현재 19개 보험회사(12개 생명보험사, 7개 손해보험사)가 경과조치를 적용 중이다.
 14)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 변경의 영향으로 자본적정성 관련 공식 기한이 202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분기 종료후 3개월(연결산의 경우 4개월)로 1개월 연장됨에 따라 현재 입수 가능한 최신 수치는 2023년 6월말 기준이다.
 15) 손해보험사의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2021년 2/4분기말 911억원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어 2023년 2/4분기말 6,020억원으로 증가하였다가 3/4분기말 5,599억원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023년 3/4분기말 18.4%로 전분기말 수준을 지속하였다.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신용카드사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2023년 3/4분기말 280.8%를 기록하였다. 이는 금년초 발생한 제도변경¹⁶⁾의 영향이 소멸된 데다, 2022년 3/4분기 이후 지속된 신용카드사 고정이하여신의 빠른 증가세가 둔화¹⁷⁾된 것에 주로 기인한다(그림 I-13).

그림 I-13. 여신전문금융회사 손실흡수력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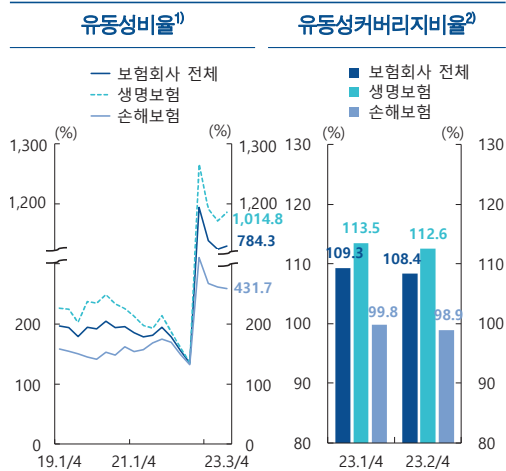


주: 1) 조정자기자본/조정총자산, 감독기준 7%(신용카드사 8%)
 2)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고정이하여신(총채권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유동성 대응능력 대체로 양호

보험회사의 유동성비율은 2022년 하반기 이후 금리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과 지급보험금 증가¹⁸⁾로 인해 2022년 3/4분기말 134.2%까지 하락하였다가, 감독당국의 유동성 자산에 대한 인정범위 확대¹⁹⁾ 등으로 4/4분기 이후 큰 폭 상승하였다.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의 유동성 대응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신규 도입된 유동성커버리지비율²⁰⁾은 2/4분기말 기준 108.4%로 전분기말(109.3%)과 대체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I-14).

그림 I-14. 보험회사 유동성 대응능력 지표



주: 1) 유동성자산/평균 3개월 지급 보험금
 2) 스트레스 상황시 가용유동성/조달필요금액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6)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23년 1월 1일 시행)으로 신용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 산정시 적용되는 신용판매, 카드대출의 미사용약정에 대한 신용환산율이 은행, 보험 등 타 업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50% → 40%)됨에 따라, 2023년 1/4분기중 감독규정 기준 총당금 필요 적립 규모가 감소하였다.

17) 신용카드사의 고정이하여신의 규모는 2022년 3/4분기말 1조 2,501억원(전분기대비 7.9%), 4/4분기말 1조 3,764억원(10.1%), 2023년 1/4분기말 1조 6,926억원(23.0%)으로 증가세가 확대되었다가 2/4분기말 1조 7,200억원(1.6%), 3/4분기말 1조 7,899억원(4.1%)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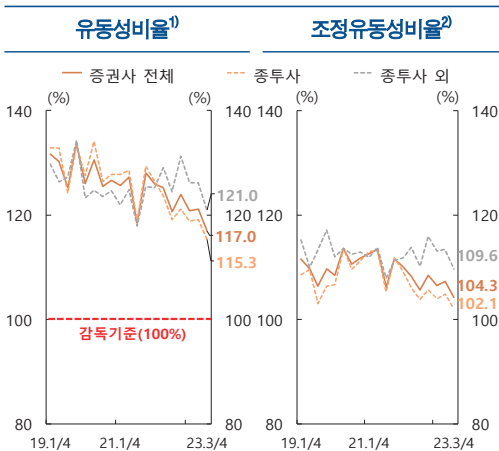
18) 2022년 들어 예금취급기관의 예금금리 상승 등으로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2022년 3/4분기 이후 2013년 중 대규모로 판매된 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10년납 비과세) 해지가 급증하면서 지급보험금이 크게 증가하였다.

19) 감독당국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22년 12월)으로 유동성비율 규제시 유동성 자산의 인정범위를 확대(만기 3개월 이하 자산 → 만기 3개월 이하 자산 및 활성시장에서 거래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 가능 자산)하여 보험회사의 유동자산 보유 부담을 완화하였다.

20) 감독당국은 기존 유동성비율의 단점(지급보험금만으로 필요 유동성을 산출하고 유동성자산의 현금화 가능 정도를 고려하지 않음)을 보완하기 위해 자산별 유동화(현금화) 가능 정도 및 지급보험금 이외 부채에 대해서도 필요 유동성 정도를 반영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신규 도입하였다.

증권회사의 유동성비율은 단기금융시장을 통한 조달 규모 증가²¹⁾ 등으로 인해 하락세가 지속²²⁾ 되면서 2023년 3/4분기말 117.0%까지 하락하였다. 우발부채인 채무보증²³⁾까지 고려한 조정유동성비율의 경우 이보다 12.7%포인트 낮은 104.3%를 기록하였다(그림 I-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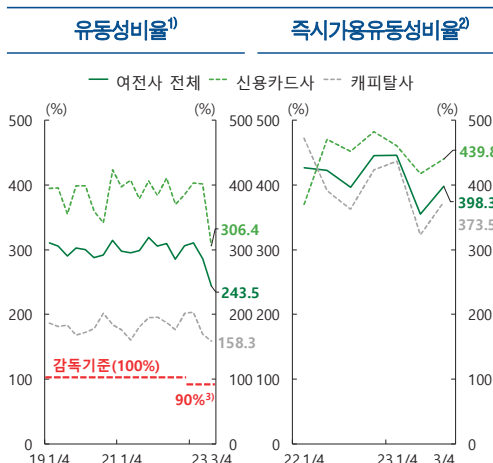
그림 I-15. 증권회사 유동성 대응능력 지표



주: 1) 잔존만기 3개월이내 유동성자산/잔존만기 3개월이내 유동성부채
 2) 잔존만기 3개월이내 유동성자산/(잔존만기 3개월이내 유동성부채+채무보증)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비율은 2023년 3/4분기말 기준 243.5%로 금년 들어 잔존만기 3개월 이내 기업어음(CP) 규모 증가²⁴⁾ 등의 영향으로 하락한 모습이다. 그러나 1개월내 유동성 대응능력을 나타내는 즉시가용유동성비율²⁵⁾의 경우 398.3%로 유동성비율을 상당폭 상회하면서 전분기말(354.7%) 대비 증가하였다(그림 I-16).

그림 I-16.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 대응능력 지표



주: 1) 90일 이내 만기도래 유동성자산/90일 이내 만기도래 유동성부채
 2) 즉시가용유동성자산/1개월 이내 만기도래 부채
 3) 2022년 12월~2024년 6월중 한시적 적용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자본비율은 모든 업권이 규제수준을 상당폭 상회하는 등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의 경우 최근 하락세가 두드러진 보험회사와 여타 업권에 비해 낮은 수준인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보다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을 통한 손실흡수력 제고가 요구된다. 유동성 대응능력의 경우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²⁶⁾에 대비해 충분한 유동성을 보유하는 한편 자금조달 만기구조의 취약성이 심화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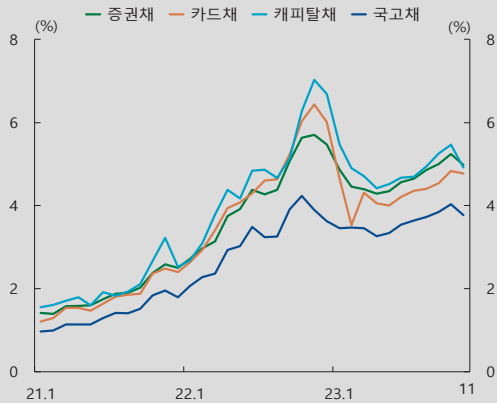
21) 증권회사의 RP(CMA 제외) 등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2023년 3/4분기말 61.3조원으로 2021년말 55.7조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였다.
 22) 2021년 3/4분기말 유동성비율이 큰 폭 하락한 것은 2020년말 대규모 발행된 1년 만기 ELS가 해당 분기중 만기 도래가 가까워지면서 유동성부채로 분류되는데 주로 기인한다.
 23) 2023년 3/4분기말 증권회사의 전체 채무보증 규모는 40.0조원이다.
 24) 여전사가 2021~22년중 발행을 확대한 만기 1년 이상 CP의 만기 도래가 가까워지면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CP 규모는 2023년 1/4분기말 2.9조원에서 3/4분기말 7.7조원까지 증가하였다.
 25) 감독당국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를 확대·개편(20년 2월)하면서 2022년부터 즉시가용유동성비율을 도입하였다. 즉시가용유동성비율은 즉시가용유동성자산(현금 및 예치금, 즉시매도가능유가증권 및 미인출약정한다 합계)을 1개월 이내 만기도래 부채로 나누어 계산한다.
 26) 자세한 내용은 <참고 6> 「증권회사·여전사의 자금조달 여건 평가 및 시사점」을 참조하기 바란다.

참고 6.

증권회사·여전사의 자금조달 여건 평가 및 시사점¹⁾

하반기 들어 시장금리(국고채 3년물 기준)가 상승하는 가운데 은행채 발행이 확대되면서 시장성차입이 주요 자금조달 경로²⁾인 증권회사와 여전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의 자금조달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³⁾ 이하에서는 최근 증권회사와 여전사의 자금조달 상황과 함께 부동산PF 관련 리스크가 자금조달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증권회사·여전사 채권 금리¹⁾²⁾ 상승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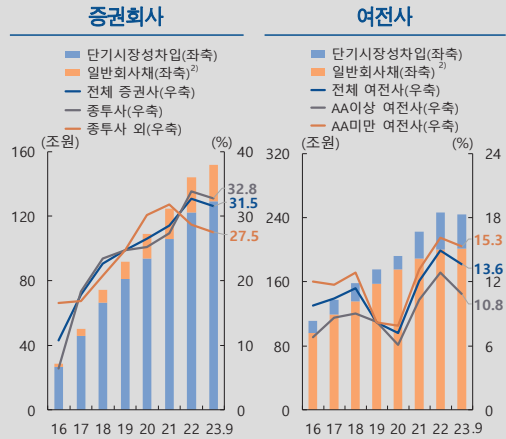
주: 1) 3년물 기준
 2) 여전사는 발행액 가중평균 금리, 증권채는 회사별 유통금리의 산술평균 기준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국은행 시사

단기시장성차입 의존도 증가

2023년 3/4분기말 증권회사 및 여전사의 차입부채 대비 단기시장성차입(CP, 단기사채, RP 등) 비중은 각각 31.5%, 13.6%로 2020년말 대비 증권회사와 여전사⁴⁾가 각각 5.0%포인트, 6.4%포인트 상승하였다.

증권회사 규모별로는 대형사인 종합금융투자회사(이하 '중투사')가 발행어음 등을 확대⁵⁾함에 따라 단기시장성차입 비중이 2022년부터 중소형사를 상회하고 있다. 반면 여전사의 경우 대체로 자산 규모가 작은 신용등급 중·하위(AA 미만) 그룹의 단기시장성차입 의존도가 상위 그룹에 비해 높게 유지되고 있어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자금조달 만기구조의 취약성에 더 노출되어 있는 모습이다.⁶⁾

시장성차입 규모 및 단기시장성차입 비중¹⁾



주: 1) 막대는 시장성차입 규모, 선은 차입부채 대비 단기시장성차입 비중을 의미
 2) 무보증후순위채 제외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연합인포맥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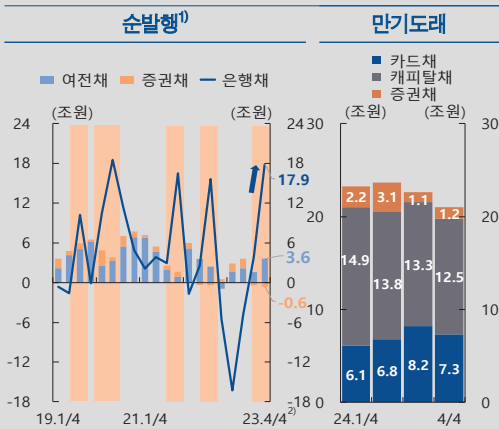
1) 본고는 송수혁·남승희·나성오(비은행리스크팀)가 작성, 이종한(금융리스크분석부장)·신준영(비은행리스크팀장)이 검토하였다.
 2) 2023년 9월말 기준 차입부채 대비 시장성자금 비중은 증권회사가 37.1%(CMA형 제외한 RP 13.3%, 발행어음 8.4%, CP 6.6%, 회사채 5.6%, 단기사채 1.6%, 콜머니 1.7%)이며, 여전사는 78.2%(회사채 64.6%, CP 12.6%, 단기사채 0.8%, RP 0.3%)이다(회사채는 후순위채 제외).
 3) 국고채(3년물) 대비 증권·여전채 금리 스프레드는 지난해 4/4분기 단기금융시장 불안이 진정된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나 올해 하반기 들어 상승으로 전환하였다. 2023년 4/4분기중(10-11월) 평균 스프레드의 2023년 2/4분기 대비 상승폭은 카드채(0.19%포인트), 증권채(0.19%포인트), 캐피탈채(0.14%포인트) 순이다.
 4) 여전사의 경우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유지한 2018-20년중에는 단기시장성차입 비중이 축소되었으나 이후 장기금리 상승 기대에 따른 시장의 회사채 수요 감소 등에 대응하여 2021-22년중 만기 1년 이상을 중심으로 CP발행이 크게 증가하였다.
 5) 중투사의 발행어음 규모는 2023년 3/4분기말 기준 34.4조원으로 2020년말(15.6조원) 대비 121.0% 증가하였다.
 6) 여전사의 만기 1년 이상 CP 발행 규모는 금년 들어 크게 감소한 반면 만기도래 규모는 4/4분기부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CP의 만기 구조도 점차 단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채 발행 확대의 영향

금년 4/4분기중(10~11월) 은행채 순발행 규모는 17.9조원으로 전분기(3.9조원) 대비 큰 폭 증가(+14.0조원)하였다. 반면 증권채는 순상환(0.6조원)되었으며, 여전채 순발행 규모는 3.6조원⁷⁾으로 전분기대비 2.0조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간 대체로 은행채 순발행 증가시 증권·여전채의 순발행 규모는 축소되는 경향⁸⁾을 나타내었다.

2024년 상반기중 증권·여전채의 만기 도래 규모는 총 46.9조원⁹⁾으로 금년 하반기 대비 증가(+3.6조원)하였으나 은행채 만기도래 규모가 큰 폭 감소¹⁰⁾하는 점을 고려할 때 증권회사 및 여전사의 채권 차환에 따른 애로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은행이 예·적금 대신 은행채 발행¹¹⁾을 통해 신규자금 조달을 확대할 경우 증권·여전채에 대한 수요가 일부 구축되고 발행 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

은행채·여전채·증권채 순발행 및 만기도래 규모



주: 1) 음영은 은행채 발행 확대 시기 2) 2023년 10~11월 기준
 자료: 연합인포맥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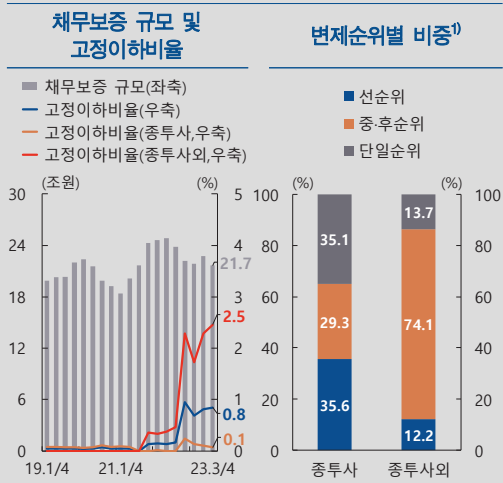
부동산PF 익스포저 관련 리스크의 영향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이 크게 상승¹²⁾하여 건전성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부동산PF 익스포저의 건전성 저하는 증권회사의 채무보증 현실화 및 여전사의 신용스프레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회사 : 부동산PF 채무보증 현실화 가능성

증권회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¹³⁾ 규모는 2023년 3/4분기말 21.7조원으로 2022년말(22.2조원) 대비 2.2% 감소하였으나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고정이하 비율이 상승한 모습이다. 특히 중소형사의 경우 채무보증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중·후순위 비중(74.1%)이 높아 보증이행을 위한 자금 수요가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다.

증권회사 부동산PF 채무보증 규모 및 변제순위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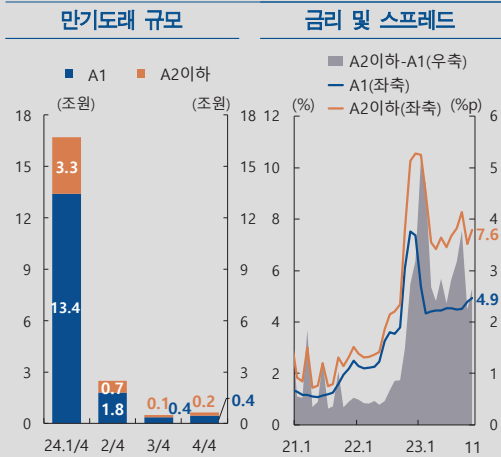


주: 1) 2023년 9월말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7) 10월중에는 순상환(-4,870억원)이었으나 11월 들어 시장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여전사 중심으로 채권 발행이 증가하면서 순발행(+4.1조원)으로 전환되었다.
 8) 2018년 1/4분기-2023년 3/4분기중 은행채와 증권·여전채의 순발행 증감 규모(전분기대비)간 상관계수는 -0.35이다.
 9) 업권별로는 캐피탈사 28.7조원(2023년 9월말 채권잔액 대비 22.4%), 신용카드사 12.9조원(16.3%), 증권회사 5.3조원(23.3%) 순이다.
 10) 은행채 만기 도래 규모는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상반기 111.9조원을 정점으로 하반기부터 감소 전환(108.2조원)되었으며, 2024년 상반기에는 81.1조원으로 감소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1) 금융위원회는 기존 은행채 발행한도 제한(월별 만기도래 물량의 100%)을 2023년 3월부터 점차 완화하여 2023년 10월부터는 한도를 폐지하였다.
 12) 2023년 3/4분기말 기준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증권회사 13.9%, 여전사 4.4%로 2022년말(증권회사 10.4%, 여전사 2.2%) 대비 높은 수준이다.
 13) 유동성 및 신용 리스크를 모두 부담하는 신용공여(19.7조원)가 증권회사 부동산PF 채무보증의 대부분(91.1%)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증권회사의 부동산PF 관련 주요 채무보증 대상인 PF-ABCP는 2024년중 만기 도래 금액(20.3조원, 23년 11월말 기준)의 82.0%인 16.7조원이 1/4분기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이중 신용등급이 낮은 A2 이하(3.3조원) PF-ABCP는 높은 신용 경계감이 유지¹⁴⁾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등급별 PF-ABCP 만기도래 규모¹²⁾ 및 PF-ABCP금리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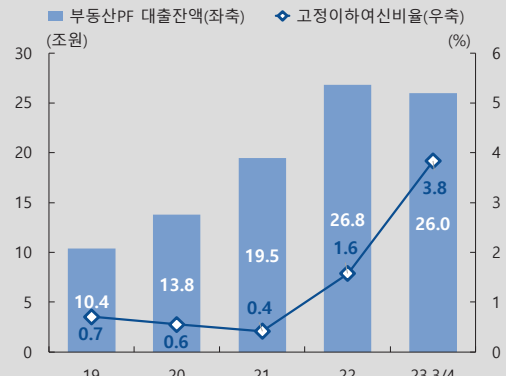


주: 1) 자산유동화증권 포함 기준 2) 2023년 11월말 기준
3) 3개월물 기준 가중평균
자료: 연합인포맥스

여전사 : 신용스프레드 상승

여전사의 부동산PF 대출잔액(23년 3/4분기말 기준 26.0조원)은 2023년 들어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대부분을 차지하는 캐피탈사¹⁵⁾ 대출을 중심으로 건전성이 저하되면서 고정이하여신비율의 상승폭은 확대되었다.

여전사 부동산PF 대출잔액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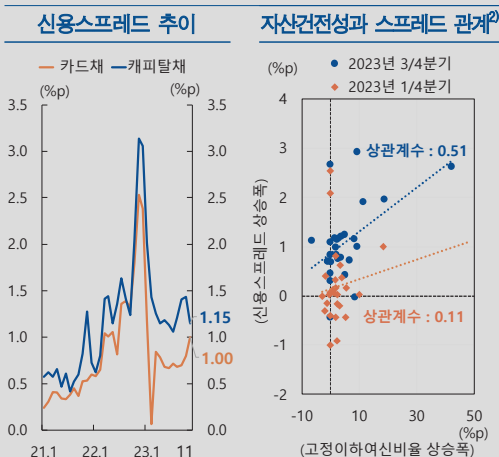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캐피탈채와 카드채 간 국고채 대비 신용스프레드의 격차는 2023년 11월 들어 축소되었으나 금년중 상당폭 확대¹⁶⁾된 상태가 유지되었다. 증권회사와 달리 캐피탈사는 채무보증 현실화 리스크보다는 부동산PF 대출의 건전성 저하 우려가 캐피탈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캐피탈채의 신용스프레드 확대를 통해 자금조달 비용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금년 들어 캐피탈사 부동산PF 대출의 고정이하여신비율 변화와 캐피탈채 신용스프레드 변화(전년동기대비)간 상관관계가 2023년 1/4분기말 0.11에서 3/4분기말 0.51로 큰 폭 상승하면서 부동산PF 대출의 자산건전성 저하에 따른 여전채 신용스프레드 상승폭의 민감도가 확대되었다.¹⁷⁾ 이는 부동산PF 대출의 건전성 제고가 지연될수록 캐피탈사의 자금조달 비용이 기증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14) 2023년 11월말 기준 신용등급 A1과 A2이하 PF-ABCP간 신용스프레드는 2.65%포인트로서 지난해 4/4분기 단기금융시장 불안 이전(2022년 9월말 기준 0.87%포인트)에 비해 상당폭 확대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15) 2023년 3/4분기말 기준 캐피탈사의 부동산PF 대출잔액은 24.0조원(신용카드사 1.9조원)으로 여전사 대출잔액의 92.5%를 차지한다.
16) 2023년 11월말 기준 캐피탈채와 카드채의 국고채 대비 신용스프레드의 격차는 전월대비 축소(0.64%포인트 → 0.14%포인트)되었으나 금년중(1~11월) 평균 0.57%포인트 격차를 나타내면서 이전(2018~22년, 0.16%포인트)에 비해 큰 차이를 유지하고 있다.
17) 신용카드사는 캐피탈사와 달리 자산건전성 저하 정도와 신용스프레드 상승간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신용카드사의 경우 2022년 3/4분기부터 신규대출에 대한 심사 강화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캐피탈사의 신용스프레드¹⁾와 부동산PF 대출 자산건전성



주: 1) 회사채 조달금리 - 국고채 3년물 기준
 2) 전년동기대비 변화폭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연합인포맥스

평가 및 시사점

증권회사와 여전사의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대응 여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¹⁸⁾으로 평가된다. 다만 은행채 발행이 확대되거나 높은 시장금리 수준이 시장의 기대에 비해 장기간 유지되는 등 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용도가 높지 않은 증권회사와 여전사의 경우 단기시장성차입 차환리스크에 한층 더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부동산PF 관련 익스포저의 건전성이 저하될 경우 증권회사는 부동산PF 채무보증 이행에 따른 유동성 수요 확대, 여전사는 신용스프레드 증가에 따른 여전채 발행 비용 증가 경로를 통해 자금조달 여건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 특히 유동성비율이

낮은¹⁹⁾ 일부 증권회사와 여전사들은 자금조달 여건 변화에 유의하면서 유동성 상황에 대한 관리를 강화²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증권회사와 여전사는 부동산시장 회복이 지연되면서 부동산PF 익스포저 관련 리스크가 증대될 경우에 대비하여 자체적인 자산건전성 제고 노력과 함께 PF대주단협약²¹⁾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신용경계감에 따른 신용스프레드 확대 및 자금조달 비용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18) 자세한 내용은 <복원력> 「1. 금융기관 - 2. 비은행금융기관 - 2.2 보험, 증권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참조하기 바란다.
 19) 2023년 9월말 기준 증권회사와 여전사 대부분은 유동성비율이 감독기준을 상당폭 상회하고 있으나, 이중 일부 증권회사(10개사)와 여전사(8개사)는 유동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110% 미만)이다.
 20) 증권회사는 채무보증 규모를 감소한 조정유동성비율, 여전사의 경우 1개월내 유동성 대응 능력을 나타내는 즉시가용유동성비율 등 강화된 유동성 지표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
 21) 부실 우려 PF사업장에 대해 채권 금융기관 주도로 채무조정 등을 통한 정상화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23년 4월 전금융권을 포괄하는 PF대주단협약이 개정·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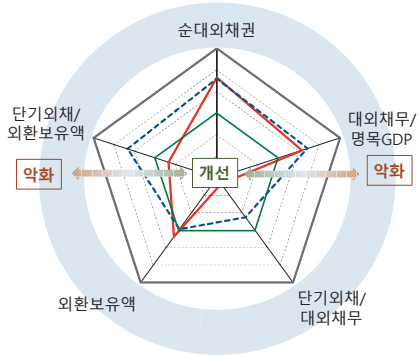
II. 대외지급능력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다.

순대외채권은 감소세가 둔화되었으며, 단기외채가 크게 줄어들면서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 및 대외채무 중 단기외채 비중 등 대외건전성지표가 크게 개선되었다(그림 II-1).

그림 II-1. 대외지급능력 지표 변화 지도

— 금번 대상기간²⁾ - - - 직전 대상기간³⁾ — 장기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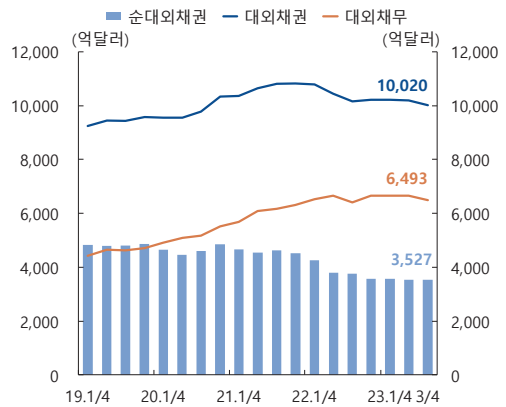


주: 1) 각 지표별 장기 평균(5년)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금번 대상기간과 직전 대상기간 지표의 상대적 수준을 지도에 도시
 2) 2023년 3/4분기말(외환보유액은 2023년 11월말)
 3) 2023년 1/4분기말
 자료: 한국은행

순대외채권 감소세 둔화

우리나라의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은 2023년 3/4분기말 3,527억달러로 1/4분기말 대비 35억달러 감소하였다. 다만 직전 대상기간(2022년 3/4분기말 대비 2023년 1/4분기말, -180억달러)에 비해서는 감소세가 둔화되었다(그림 I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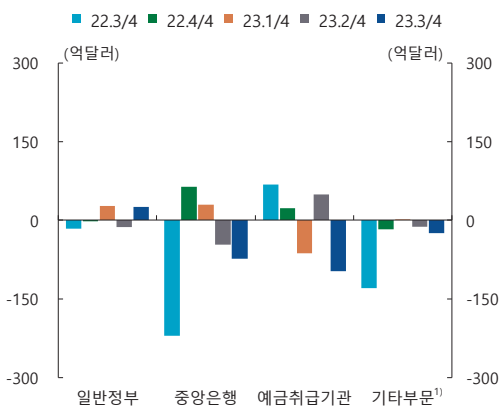
그림 II-2. 순대외채권¹⁾



주: 1) 분기말 잔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대외채권은 2023년 3/4분기말 현재 1조 20억달러로 1/4분기말 대비 192억달러 감소하였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일반정부는 해외증권투자 확대 등으로 12억달러 증가하였다. 중앙은행은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조치, 미달러화 강세에 따른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화 환산액 감소 등에 의한 외환보유액 감소 영향으로 120억달러 줄었다. 예금취급기관은 48억달러 감소하였는데 주로 국내은행의 대외자산 운용이 축소된 데 기인한다. 기타 부문은 기타금융기관의 해외증권투자 축소 등으로 36억달러 감소하였다(그림 II-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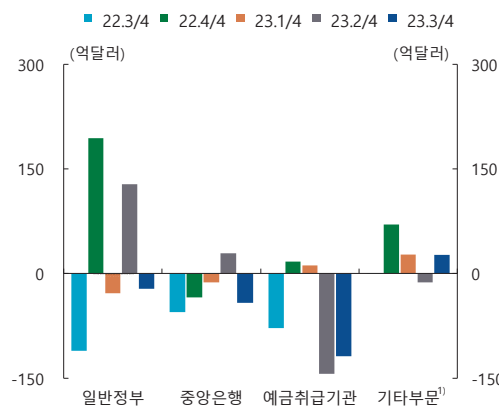
그림 II-3. 부문별 대외채권 증감



주: 1)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등의 기타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 등으로 구성
자료: 한국은행

대외채무는 2023년 3/4분기말 6,493억달러로 1/4분기 대비 157억달러 감소하였다. 일반정부는 외국인의 국공채 투자 증가 등으로 106억달러 증가한 데 비해 중앙은행은 외국인의 통안증권 투자 감소 등으로 13억달러 감소하였다. 예금취급기관은 외국인의 은행채 투자 감소와 외은지점의 본지점차입 축소 등으로 263억달러 감소하였다. 기타 부문은 민간의 외화증권발행이 확대되면서 14억달러 증가하였다(그림 II-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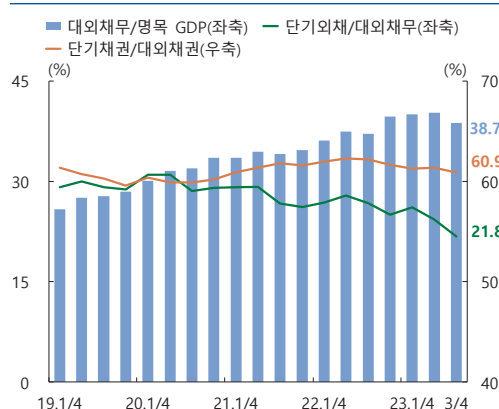
그림 II-4. 부문별 대외채무 증감



주: 1)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등의 기타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 등으로 구성
자료: 한국은행

명목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은 2023년 3/4분기말 38.7%로 1/4분기(40.0%) 대비 감소하였다. 대외채무중 단기외채 비중은 21.8%로 1/4분기(26.1%) 대비 하락²²⁾하였다. 대외채권중 단기채권 비중은 60.9%로 1/4분기(61.2%) 대비 하락하였다(그림 II-5).

그림 II-5. 단기 대외 채무·채권 비중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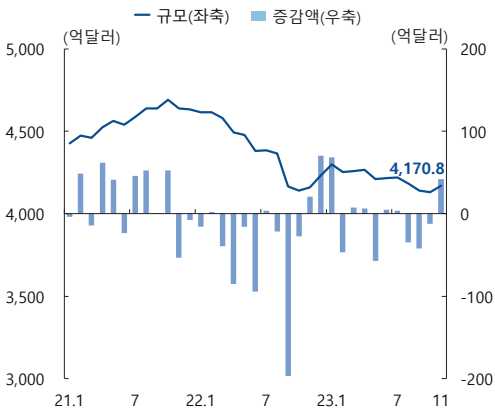
주: 1) 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22) 2023년 3/4분기말 단기외채는 은행의 대외차입 및 외국인의 단기 원화채권투자 감소, 이란의 국내 동결자금 회수 등으로 1/4분기 대비 321억달러 감소하였다.

외환보유액 감소

2023년 11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금년 5월말 (4,209.8억달러) 대비 39.0억달러 감소한 4,170.8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 포함) 등에 기인한다(그림 II-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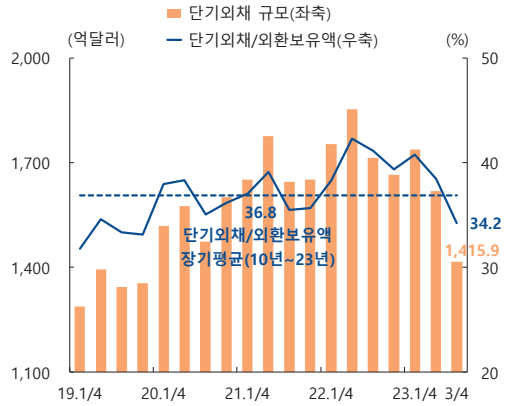
그림 II-6. 외환보유액 규모 및 증감액¹⁾



주: 1) 규모는 월말, 증감액은 월중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편 2023년 3/4분기말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34.2%로 단기외채가 크게 감소하면서 1/4분기(40.8%) 대비 6.5%포인트 하락하였다(그림 II-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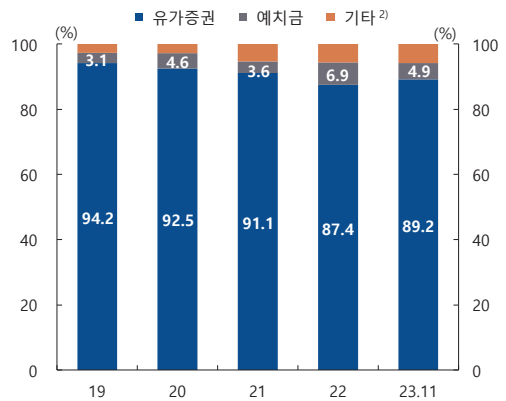
그림 II-7.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¹⁾



주: 1) 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2023년 11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의 구성을 보면 유가증권(89.2%) 및 예치금(4.9%)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유가증권은 국채, 정부기관채, 자산유동화채 등 유동성이 높은 안전자산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II-8).

그림 II-8. 외환보유액 구성¹⁾



주: 1) 연월말 기준
2) 금, SDR 등
자료: 한국은행

III. 금융시장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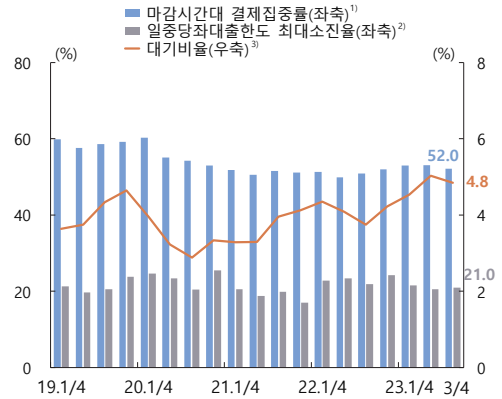
한은금융망 등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결제규모는 금융기관의 증권결제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한은금융망

금융기관 간 채권·채무를 최종 결제하는 한은금융망의 일평균 결제금액은 2023년 3/4분기중 543.9조원으로 지난해(524.3조원)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관련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확보수준을 나타내는 일중당좌대출한도 최대소진율 및 자금이체지시 대기비율은 2023년 3/4분기중 각각 21.0%, 4.8%로 대체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였다. 전체 결제금액 중 마감시간대(16:00~17:30) 결제 비중은 3/4분기중 52.0%로 전년동기(50.8%)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그림 III-1).

그림 III-1. 한은금융망 관련 리스크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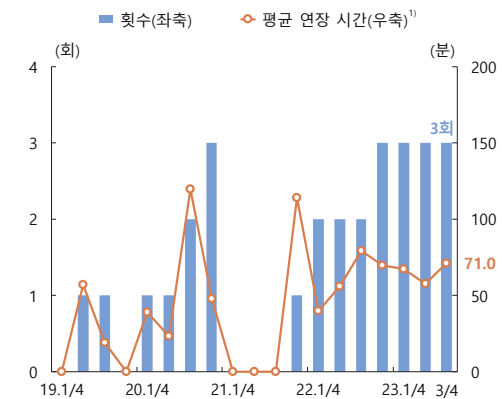


주: 1) 해당 기간 중 16시 이후 결제금액/총결제금액
 2) 참가기관들의 일별 일중당좌대출한도 최대소진율의 평균
 3) 참가기관들의 대기금액/총결제금액(유동성절감을 위한 대기 제외)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한편 한은금융망 마감시간 연장은 2023년 3/4분기중 3회 발생하였으며, 이는 한국은행 RP매입 입찰실시에 따른 결제 처리 등에 따른 것이었다(그림 III-2).

그림 III-2.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 현황



주: 1) 해당 기간 총 연장시간/연장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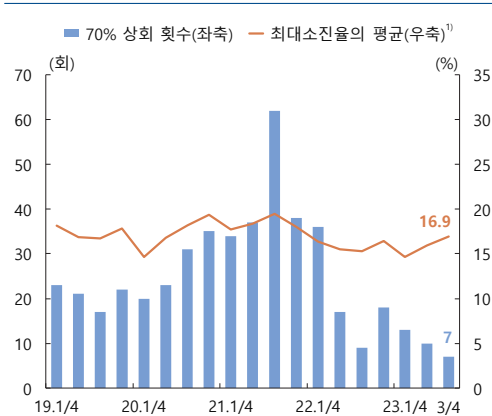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소액결제시스템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의 일평균 결제금액은 2023년 3/4분기중 96.7조원으로 지난해(99.3조원)보다 줄어든 가운데 관련 결제 리스크는 대체로 원활히 관리되었다.

소액결제시스템의 리스크 지표를 보면 차액결제 참가기관들의 순이체한도¹⁾ 소진율이 주의 수준(70%)을 상회한 횟수는 3/4분기중 7회로 전년 동기(9회)에 비해 감소하였다. 순이체한도 소진율을 평균은 2023년 3/4분기중 16.9%로 전년 동기(15.3%)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에서 관리되었다(그림 III-3).

그림 III-3. 순이체한도 소진율



주: 1) 해당 기간중 참가기관들의 일별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의 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증권결제시스템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결제시스템의 결제규모는 확대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동시스템의 일평균 결제금액은 2023년 3/4분기중 265.5조원으로 기관간 RP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236.8조원)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 3/4분기중 장내주식, 장내국채 및 장외주식기관투자자 거래는 모두 기준시한(각각 16:00, 17:00, 16:50) 이전에 결제가 모두 완료되었다(표 III-1).

표 III-1. 기준시한 이후 증권결제 비중¹⁾

	기준시한 ²⁾	비중(%)				
		2022년		2023년		
		3/4	4/4	1/4	2/4	3/4
장내주식	16:00	-	-	-	-	-
장내국채	17:00	-	-	-	-	-
장외주식 기관투자자	16:50	-	-	-	-	-

주: 1) 해당 기간중 기준시한 이후 결제금액/총결제금액
 2) 결제지연손해금 부과기준
 자료: 한국은행

1)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등 소액결제시스템의 경우 수취인에 대한 지급은 즉시 이루어지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금융기관 간 채권·채무는 한은금융망을 통해 익영업일 지정시점(오전 11:00)에 결제되므로 금융기관 간 신용공여가 발생한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소액결제시스템의 차액결제리스크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참가기관들이 미결제순이체액의 상한, 즉 순이체한도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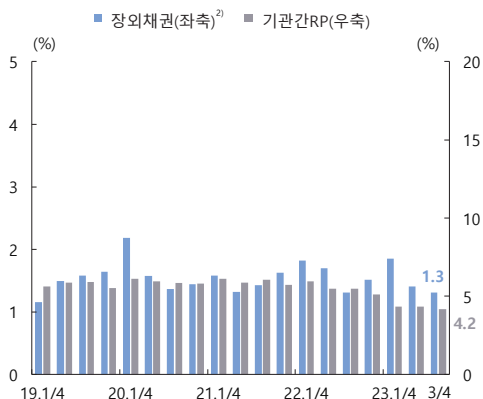
장외채권 및 기관간RP 거래의 경우 증권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분리결제 비중이 2023년 3/4분기중 각각 1.3% 및 4.2%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III-4).

외환결제시스템²⁾

CLS은행이 운영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CLS시스템)³⁾의 결제액은 2023년 3/4분기중 일평균 750.9억달러로 지난해(748.4억달러)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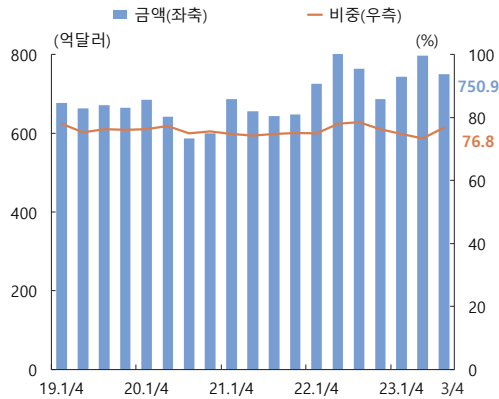
CLS시스템을 통한 외환동시결제 비중이 2023년 3/4분기중 76.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외환거래 관련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그림 III-5).

그림 III-4. 분리결제 비중¹⁾



주: 1) 장외채권 및 기관간RP 거래 결제금액 중 증권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결제금액 비중
2) 연쇄결제 차감 후 최종결제 기준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그림 III-5. CLS시스템 이용 금액¹⁾ 및 비중²⁾



주: 1) 분기중 일평균,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 거래분
2) 대상 외환거래 중 CLS시스템을 통해 결제된 비중,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 거래분
자료: 한국은행

- 외환결제는 은행간 환거래 네트워크, CLS은행이 운영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 국내 외화자금이체시스템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결제규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CLS시스템을 통한 외환동시결제에 중점을 두었다.
-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은행은 외환결제리스크의 근본적 발생 원인이 되는 각 국가간 시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통 결제시간대(중부유럽시간 기준 07:00~12:00)에 집중하여 결제를 처리한다. CLS는 동 시간대에 각 통화별 중앙은행에 개설된 결제 회원은행과 CLS은행 계좌간 실제 자금이체(자금 납입 및 지급)가 연속적으로 연계되어 결제됨을 의미한다. 현재 미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18개 CLS 결제통화의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한은금융망 포함)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